나빠도 나쁘다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것이 진리예요

☞ 17면에서 계속

둘이 아니게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뿌리, 주인공에다 놓고 삼배를 올리든지 일배를 올린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급하면 일배를 올려도 삼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삼정례를 그냥 하시고, 칠정례나 팔정례나 삼정례나 일정례나 다 똑같습니다. 급하면 일정례를,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해도 되고 삼정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거를 해 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걸 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안식 얘기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죠. 저 부처님 한마음을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히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죽거리고 행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베푸시니 이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 이 부처님한테 천체를 맡겨 놓았습니다. 또 여기 스님한테는 이끌어 주는 법을 그대로 전달하게끔 해 놓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하하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지마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가 둘이 아니에요. 모습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있더라. 그 인간이 없으면 천지는 만들어 뭘 합니까? 인간이 없는데 천지가 어찌 있으며 천지가 없는데 인간이 어찌 있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저 오기만 하면 저 부처님이 여러분의 애고를 불에 태워 줄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사를 지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공양 한 그릇을 놓고 공양을 올릴 때에 일체제불과 일체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드십니다. 부처님이 한 그릇을 받아서 그 한 그릇을 토해서 다시 중생들에게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내리고 받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기를 "바다를 한 찰나에 삼켰다가 한 찰나에 토해서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어서 정맥 동맥이 내려오고 올라가듯이, 공양을 올리는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천지를 다 먹이고도 그 한 그릇은 되남는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사를 지낼 때 찹쌀로다가 떡 한 그릇을 해서 놓고 향, 다기, 꽃을 놓고서 그냥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 영령 혼백들이 들어오면 벌써 혼백을 봅니다.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상에다가 잔뜩 차려 놓곤, 얼마를 내놨는데 얼마치 물건을 샀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상 차려 놓고는 '이거는 얼마 들여서 사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고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그 조상 영령들한테 고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응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음식만 먹으러 다니게.

그러나 이 떡 한 그릇이라는 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아주 천체가 먹고도 남을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입니다. 공심으로 공양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놓고서 한다면 영령들이 스님의 마음에 착 들어와서 볼 때 아래 위도 터졌고 사방도 터졌고 천체가 내 것 아닌 게 없어요. 혼백들이 들어와 보니까 그냥 전부, 천상세계가 그냥 전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게 그냥 확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밖에요. 그런데 상에다가 몇 알갱이 차려 놓은 고것만 보고서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 '어이,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지마는 어항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살아요. 인간은 그거를 답답하게 보지마는 붕어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은 못 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만 보지요. 하하하…. 자기가 지금 어항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재하면서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서 발을 뽑아야 하겠기에, 세세생생에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됐다가 짐승으로 됐다가 독사로 됐다가 개로 됐다가 돼지로 됐다가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과거의 네가 저지른 거니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이 돼서 현실로 팔자 운명애고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흥! 거기서 저지른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다 놨을 때에,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다 놨을 때에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지마는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그냥 상 차리지 않고 재사 지내 주세요." 그러고는 갖다 놓죠.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종합 그, 뭔가?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물건이 그냥 뭐, 가질 거 못 가질 거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천지 우주 세계에 전체 그냥 색색가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참, 이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알아야 자기의 그 조상 영혼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영들이 셋씩 넷씩 들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그때는 미꾸람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마음공부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한 방씩 줬고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아,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들을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덤빈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들이려고 물건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줬죠. 다 나눠 줬으니 펄펄 뛰고 길길이 뛸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요. 요만한 플라스틱 대접인가 뭐, 그거에다 담아서 죄 나눠 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참 잘 지냈다!" 아, 이러고 나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뛰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순경 불러온다고. 그래서 내 말이 그랬어요. "불러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구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나, 염불을 하나 해 주길 하나,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나눠서들 먹어 치워 버리고선 이러니 이런 땡땡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랬는데 어머니를 복 패듯 하고 그러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꽃을 꽂아 놨었어요. 그 꽃 한 송이 꽂아 둔 물을 갖다가 쓱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승천하는 곳이구나.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더니 그러고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때가 많아요. 아주 미친 짓을 해 놓고는 나한테 와서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번연히 사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돈을 갖다 넣고는 인제는 집도 절도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그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게 살라." 또는 "우연히가 없다. 이건 절대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인제 재사 지내는 그 뜻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 놓으면 한 상 거리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어요. 그 혼백의 조상들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스님네가 재사를 지내는데 옹졸하게 그렇게 지내 주느니 저렇게 지내 주느니, 차려 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 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발짝 떼어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 밥 찌개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개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감지하고 바다를 마신 거와 같이, 또 바다를 토함과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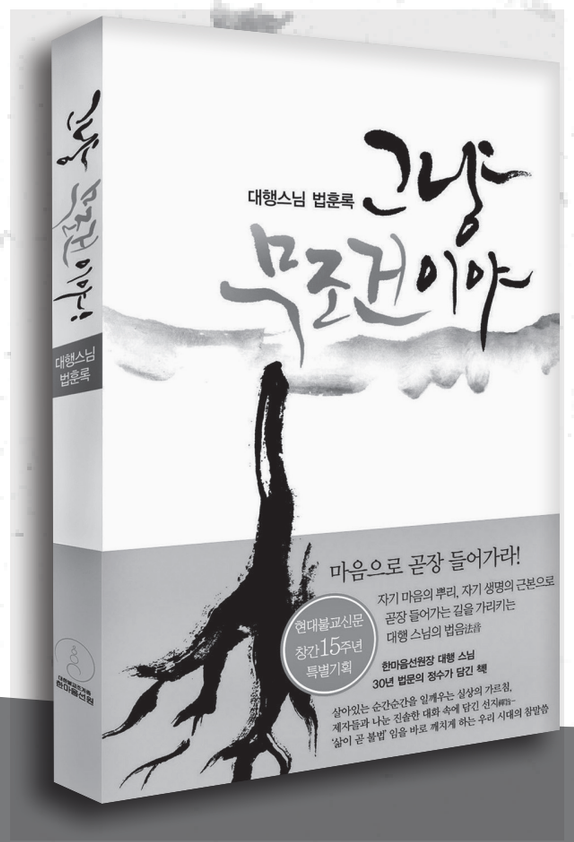
또 내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했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하하…, 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여기 청주에서 아주 요긴할 거, 우리가 생활에서 요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시급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갖다가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고정된 게 없고 이것 저것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을 줄 알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느 거 하나 고정된 게 없이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닥치는데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야 할 그런 용기와 믿음과 지혜, 이런 것이 모두 첨보돼야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자기 주인공 뿌리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너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애고를 없앨 수 있다. 너만이 병고를 낫게 해서 튼튼하게 심부름을 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뚱이와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자기 스스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세워서 해 나가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